

영월-평창 지역, 삼방산 일대의 호상 형태 지질구조

고희재*, 황재하, 최위찬
한국자원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hjkoh@kis.kigam.re.kr

옥천대에서 지층의 분포, 트러스트의 방향은 전반적인 옥천대의 주향과 유사하게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충주-문경에서부터 영월-평창까지의 지역에서 각동트러스트의 북서부에 분포하는 옥천층군, 영월형 조선누층군과 트러스트의 주향은 북동-남서에서 북서-남동, 남-북 방향으로 점이적으로 변화한다. 영월-평창 일대에서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트러스트와 영월형 조선누층군은 삼방산 북동부 지역과 주천 지역에서 동-서 방향의 반원 형태로 평창형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을 충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북동부에서는 더 이상 남-북 방향의 지질구조와 동-서 방향의 반원 형태를 갖는 트러스트가 연장 발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삼방산 지역의 지질구조 해석은 영월형 조선누층군의 지구조적 진화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영월인편상구조대의 문곡-마차리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을 갖는 영월형 조선누층군과 트러스트가 발달하고, 북쪽으로의 연장인 삼방산 지역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분포한다. 비록 삼방산 지역에서 삼방산층이 외견상으로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더라도, 이 지역에 분포하는 마차리층은 남-북에서 N30° W의 주향을 갖으며 삼방산층의 내부로 연장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삼방산층의 외견상 분포와 실제 주향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영월인편상구조대의 basal thrust는 삼방산층의 분포지역으로 연장되는 마차리트러스트이다. 삼방산 일대에서는 마차리트러스트로부터 분지되는 트러스트의 branch line이 트러스트 운동 방향과 아평행하게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 branch line으로부터 분지된 새로운 트러스트의 주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며, 영월인편상구조대의 전반적인 트러스트 운동 방향과는 수직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사각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frontal ramp에 속하는 문곡-마차리 지역에서 발달한 남-북 방향의 트러스트는 lateral ramp에 속하는 삼방산 지역으로 연장되면서 그 주향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일 지층인 삼방산층의 내부에는 트러스트가 반복 증첩됨에 따라서 외관상으로 동-서 방향의 호상 형태로 삼방산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